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 요한1서 성경공부

제 1강: 왜 요한일서인가?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교회가 처음으로 영상성경공부를 진행합니다. 앞으로 교역자들이 더 다양한 영상성경공부를 진행하게 될 것인데요. 이 일에 적극 동참해주시고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공동서신, 그러니까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1, 2, 3서, 그리고 유다서를 연구하고 준비해서 영상성경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동서신을 공부하려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신앙의 균형입니다. 우리는 주로 바울 서신을 많이 읽고 공부해서 상대적으로 공동서신을 많이 읽고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성경공부를 통해 공동서신을 많이 읽고 공부해서 신앙의 균형을 잡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이 공동서신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너무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도 어려움이 많고, 교회 외적으로는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공동서신을 수신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유사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의 출현과 성도 사이의 불화로, 그리고 교회 외적으로는 세상의 비난과 박해로 인하여서 견디기 쉽지 않은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 공동서신에 담겨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와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주님의 말씀이 공동서신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동서신을 영상을 통해 성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1.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오늘부터는 요한1서를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왜 요한1서를 가장 먼저 공부하려고 하나요?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진리를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혹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저도 이런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신학을 공부하는 목회자로서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묵상할수록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진리의 하나님”(시31:5)을 찬양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14:6)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요

16:13)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진리시라는 것은 마귀와 비교할 때에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버지”(요8:46)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결단코 거짓의 종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그러시고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진리의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의 역사는 거짓과 이단과 사이비와의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습니다. 바울의 서신서와 공동서신서를 읽어보면, 초대교회를 괴롭힌 두 가지 거짓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완성한다.”고 거짓 가르침을 가르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과 맞서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썩어질 육신을 가진 존재는 썩지 않는 영적 존재에 비하여 열등하므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요한1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옹호합니다.

우리교회는 종교개혁의 전통에 서 있습니다. 종교개혁도 진리를 회복하고 수호하겠다는 정신으로 일어났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가톨릭교회와 교황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교회의 교황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다 진리였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판매하는 면죄부를 사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거짓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맞서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만이 진리임”을 선포한 것이 종교개혁의 근본정신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우리교회와 믿음의 선조들도 진리수호의 일 때문에 핍박을 받고 심지어 순교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을 때에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들은 순교하시면서까지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거짓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박해와 순교의 상황에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한 일은 거짓에 맞서서 진리를 수호하겠다는 신앙의 정신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진리를 증언하며 진리대로 더더욱 살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거짓으로 진리를 현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는 거짓으로 무장한 이단이 얼마나 교회와 세상을 어지럽히는가를 극명하게 목격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던 세월호 사건이 그랬습니다. 그 사건은 구원파 이단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새까만 바

다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운명을 달리했는데, 세월호 선장은 너무도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 격분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조금의 미안함도 보이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구원파의 잘못된 가르침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코람 데오”의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살아있는 양심을 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파는 양심도 없고 죄책감도 없는 인간을 만들어 냅니다. 정동섭 교수(한동대 겸임교수)에 따르면 “구원파의 핵심교리를 정리하자면 ‘영혼이 구원받았으므로 몸으로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며 그래서 “몸이 사기를 치고 살인을 해도 구원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구원파에 따르면 일단 구원을 받으면 자신이 행하는 일이 아무리 잘못된 일이라고 해도 양심에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육을 받으니 수 백 명의 아이들을 죽여 놓고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무서운 인간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 교리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은 100% 완벽한 진리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100% 완전한 진리를 소유한 존재를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이만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교인들은 이만희를 신격화하고 우상처럼 섬기면서도 그가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거짓은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죽인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대로 살아서 거짓을 드러내며 진리를 증언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도 살고 세상도 살릴 수 있습니다.

2. 진리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의 진리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이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는 오늘날 고전으로 읽히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칼빈주의 신앙이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일으킨 정신적 근본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칼빈주의 신앙의 대표적인 내용이 “이중 예정론”입니다. 이중 예정론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갈 백성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갈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버에 따르면 이 이중예정론의 교리를 대하게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일종의 불안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쉽게 “나는 영원 전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야!”라는 확신을 갖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정말 선택받았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불안해지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불안

감을 극복하고 살기 위한 방안을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방어기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베버에 따르면 이중예정론 때문에 불안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 지상의 삶에서 그리고 물질적인 측면에서도 복을 주실 거야!”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에 이르게 되면, 선택 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현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공하려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직업은 두 가지 이유에서 너무도 중요한 것이 됩니다. 첫째로는 직업을 통하여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원 전부터 선택하시고 축복하셨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직업에서 성공하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버의 결론은 이중예정론이 성실하게 일하는 직업윤리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연스럽게 “재물(돈)”을 모으게 됩니다. 그러나 재물을 조금 모았다고 하더라도, 게을러지거나 모은 재물을 방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불경건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일할수록 그만큼 더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재물이 자본주의를 일으키는 토대가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란 재물을 투자하여 기업을 일구고, 정당한 방법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경제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칼빈주의에서 가르친 하나의 신앙이 열심히 일하게 하는 직업윤리를 낳았고, 그 결과로 자본주의라는 경제제도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베버의 주장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적지 않은 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종류의 신앙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일터와 교회, 나라가 바뀔 수 있다는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진리의 복음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가지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거짓 복음을 가지면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진리인가? 거짓인가? 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인가? 마귀인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요8:44) 예수님이 진리이시므로, 그분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이기에, 그 속에는 죽음(살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

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3. 요한일서는 진리의 서신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요한일서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는 진리의 서신이기에 때문입니다. 요한일서의 진리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의 진리입니다. 믿음의 진리는 곧 예수님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의 기자가 선포하는 믿음의 진리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요일2:21-22)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요일4:1-3)

둘째, 삶(행위)의 진리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곧 삶(행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약1:22)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약2:17)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바른 삶(행위)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바른 삶(행위)은 의로움(거룩함)과 사랑입니다.

(1)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의 계명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요일 2:3-4, 6)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요일5:3)

(2)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

하게 하실 것이요”(요일1:5-7)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요일2:1)

(3)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요일3:11)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일4:7-8)

4. 요한일서 개요

(1) 요한일서의 저자

요한일서는 신약 성경의 다른 서신들과 달리 기록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의 저자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과 표현 방식이 유사하며, 아울러 서신의 내용을 분석해볼 때 말년에 에베소에서 지낸 사도 요한이라는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요한일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활동 초기부터 따라다녔던 제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요일1:2-3)

둘째, 그래서 요한일서 전체에는 사도로서 권위를 가진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어투(명령형 등)가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2장 6절에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일서는 사랑을 매우 강조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으며 생애 후반을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보냈습니다. 이상을 종합할 때, 요한일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으로 결론내릴 수 있습니다.

(2) 요한일서의 기록 연대와 장소, 수신자

서신은 AD(서기)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다는 데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이 서신을 쓸 당시 사도 요한은 매우 연로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수신자들을 “나의 자녀들아”(2:1)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요한일서의 기록동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유는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짓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본래 같은 교회에 속하였으나,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어렵게 만들다가 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요일2:19) 사도 요한은 이들을 가리켜 적그리스도(4:3)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의 사람들, 적그리스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학자들은 이들이 초기의 “영지주의자들”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영지주의의 중심교설은 영과 육(물질)의 이원론입니다. 이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동시에, 물질세계에서 빛 가운데서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삶이나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육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영지주의는 거짓 믿음을 가지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첫째, 믿음의 일에서 영지주의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특히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요일4:3)

둘째, 영지주의자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며, 죄를 짓는 일에도 경계를 하지 않습니다. 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요일1:8)

셋째, 영지주의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모순을 범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요일2:9) “누군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요일4:20)

(3) 요한일서 영상공부 방식

첫째, 본문을 먼저 자세하게 읽습니다. 한 번은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 번은 현대어 성경으로 읽습니다.

둘째,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요 메시지를 나누어 드립니다.

셋째, 강의안을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니 보시면서 강의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 강의를 끝나면, 5문제 전후의 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는데 3문제 이상을 맞추어야 다음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5) 요한일서 내용분석

1) 서언(1:1-4): 우리는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만졌습니다.

2) 믿음의 진리: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1) 2:18-2:27: 진리와 거짓의 척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2) 4:1-6: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

(3) 5:4-12: 믿음(진리)은 세상을 이깁니다.

3) 삶의 진리: 거룩과 의

(1) 1:5-2:2: 하나님이 빛이시니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2) 2:12-17: 진리의 자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3) 2:28-3:10: 진리의 자녀는 죄를 범치 않고 의를 행합니다.

4) 삶의 진리: 사랑

(1) 2:3-11: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2) 3:11-24: 진리에 속한 사람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니다.

(3) 4:7-5:3: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서로 사랑합시다.

5) 결언(5:13-21):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십시오.

* 제시해드린 내용분석에 따라서 앞으로 11차례 진리의 서신인 요한1서를 공부합니다.